

일 일 번 처 처 힘

‘상전벽해’ 서울디지털단지를 탄생시키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



테헤란벨리를 제치고 한국 벤처의 요람으로 새롭게 부상한 서울디지털단지 (이하 디지털단지). 옛 구로공단 자리에 들어선 66개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에는 현재 7,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디지털단지의 변신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오늘날 디지털단지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지금은 단지내 입주 벤처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를 찾아가 보았다.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부상한 서울디지털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 서울지사 일일체험에는 IT 솔루션기업인 유틸티의 최규현 대표가 동행했다. 올봄에 본사를 안양에서 디지털단지로 이전한 그는 “공단을 한 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벤처다이제스트> 덕분에 기회를 얻었다”며 웃는다. 서울지사가 있는 사옥에 들어서자 산학협력팀 안성기 팀장이 반갑게 맞이한다. “날씨가 추운데, 오시느라 힘드셨죠?”라며 인사를 건네는 안 팀장. 전날 첫눈이 내렸던 탓인지 바깥 체감온도는 영하에 가까웠지만 따뜻한 환대에 모두들 언뜻 녹듯이 기분이 좋아진다. 안 팀장은 오늘 일일 벤처 대한 일정을 간략한 소개한 후, 일행을 지사장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안내했다.

마침 외부에 약속이 있어서 출타를 준비중인 진기우 서울지사장. 바쁜 와중에도 일행을 반갑게 맞으며 악수를 건넨다. 이날 일일체험자 최규현 대표가 단지내 입주한 벤처기업 CEO라고 안 팀장이 소개하자, 진기우 지사장은 “아! 그래요. 어떤 업종입니까?”라며 큰 관심을 표한다. 최 대표가 유틸티의 IT솔루션 비즈니스를 설명하자, “공단에서 지원하는 산학기술포럼, 연구개발지원센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 지사장은 사업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아끼질 않는다. 그는 이어 “단지내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단으로 연락주세요”라며 서울지사 수장으로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민간사업자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큰 기여

지사장실을 나오는 길에 일행의 시선을 끄는 사진들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과거와 오늘의 모습. 60년대 옛 구로공단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디지털단지로 재탄생하기까지의 순간들을 연대별로 정리해 놓은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이 사진이 1965년 구로공단 1단지 착공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세월이 많이 변했죠.” 맨 좌측의 사진을 가르키며 안 팀장이 말한다.

굴뚝에서 연기가 치솟는 흑백의 낡은 재래식 공장 사진과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숲으로 변모된 지금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는 최 대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구로공단 주변에 굴뚝이 보였는데, 이렇게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한 모습이 정말 놀랍다”며 감탄한다. “우리 공단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구로공단 첨단화 계획을 세우고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아파트형 공장 66개가 서울디지털단지내 준공되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13개가 완공되면 입주기업이 1만여 개로 한국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단지 탄생을 힘써왔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노력을 말하는 안 팀장.





입주기업 만남의 장 제공하는 이노카페

사진이 전시된 복도를 따라 걷다가 1층으로 가면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노카페가 있다. 카페에 마련된, 심리 상담소와 고령자 취업상담 안내판이 시선을 끈다. 단지내 입주기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잘 정돈되어 있다. “이노카페는 어떤 공간이냐?”고 묻는 최 대표. 이곳저곳 살펴보며 관심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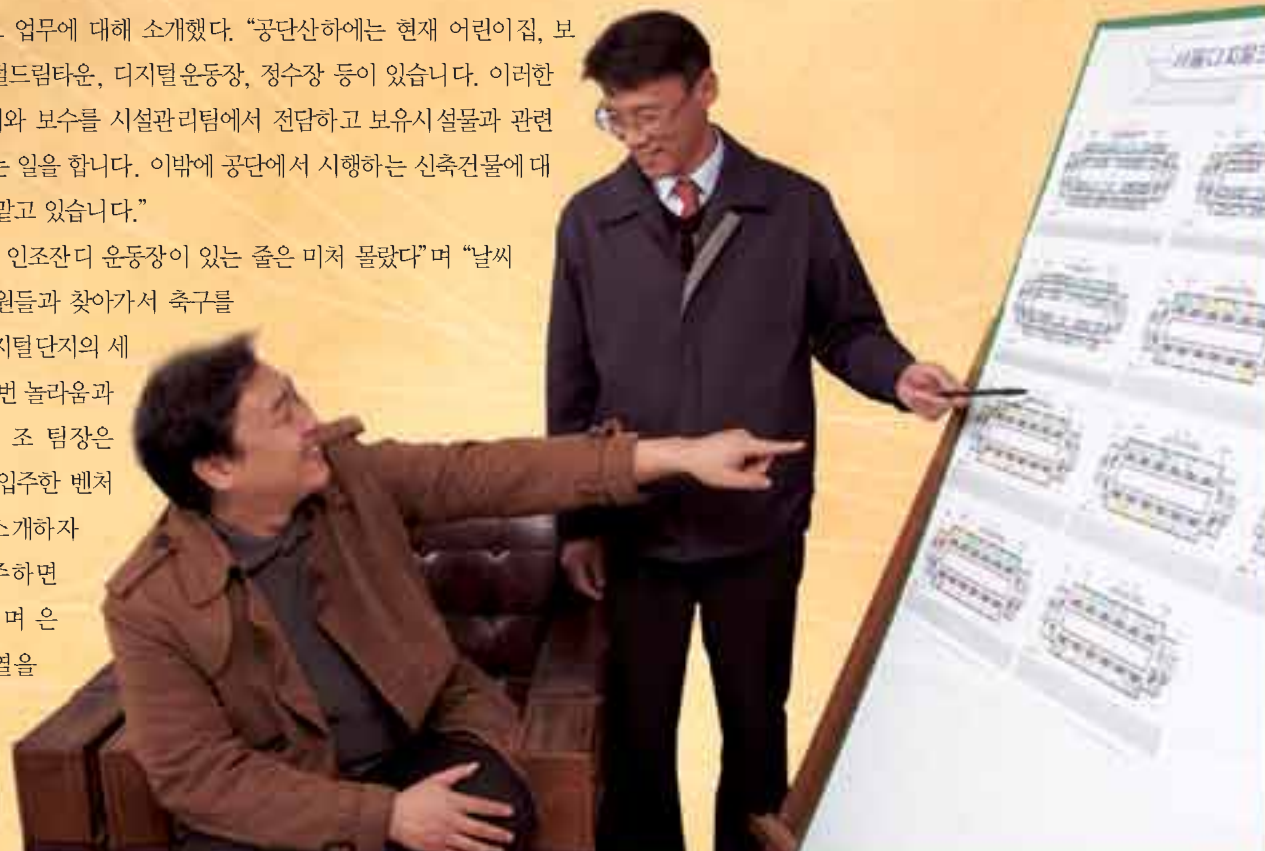
안 팀장은 “옛날 다방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과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이라고 이노카페를 소개한다. “이 곳에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안내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공통관심분야에 대한 포럼, 연구회, 교류회 등 다양한 모임도 있죠.” 안 팀장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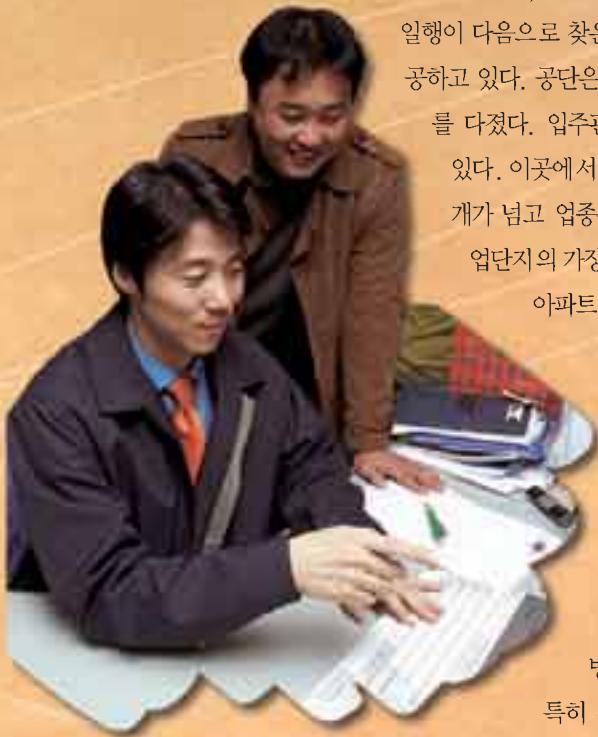
자리에서 일어나 심리 상담소로 찾아가는 최 대표. 노동부에서 무료로 단지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이곳의 EAP(직장인 전문 프로그램) 전문가 송희숙씨와 잠시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심리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 “직원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회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직원들이 가끔 스트레스를 겪는데, 아주 좋은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네요.” 최 대표는 조만간 유틸리티 직원들을 데리고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단지내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한 일행은 시설관리팀을 찾았다. 조명희 팀장을 중심으로 4명의 팀원들은 단지내 입주기업들의 업무향상과 근로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을 관리한다. 서울디지털단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현황판을 세워두고 설명하는 조명희 팀장. 마치 산업단지에서 견학하러 온 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홍보 도우미의 모습이다. 실제로 그는 올해 공단에서 수여하는 ‘산단공인 대상’ 모범직원에게 뽑히며 봉사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인물. 조 팀장은 시설관리팀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공단산하에는 현재 어린이집, 보세창고, 서울디지털드림타운, 디지털운동장, 정수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유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시설관리팀에서 전담하고 보유시설물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이밖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맡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단지내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며 “날씨가 따뜻해지면 직원들과 찾아가서 축구를 해보야겠다”고 디지털단지의 세밀한 구성에 또 한번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했다. 조 팀장은 최 대표가 SVI에 입주한 벤처기업 CEO라고 소개하자 “드림타운에 입주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며 은근히(?) 홍보에 열을





올린다. 그러자, 최 대표는 “SVI에 입주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또 다시 이사해요?”라며 크게 웃는다.

일행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입주관리팀. 이곳에서는 7명의 직원들이 단지내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 표준모델기관으로 도약하지는 의지 를 다졌다. 입주관리팀도 이 비전에 맞춰 단지내 입주기업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행을 맞이한 입주관리팀 유영재 과장.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등록된 벤처기업만 820 개가 넘고 업종분포를 보면 지식·정보통신산업과 전기전자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하며 “서울산 업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상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시 세계 혜택은 물론 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과장의 입주관리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에 대해 꼼꼼하게 듣는 최 대표. 이번 일일체험이 회사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흐뭇해한다.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서울산학기술포럼

일행은 마지막으로 안성기 팀장이 이끌고 있는 산학협력팀을 찾아갔다. 이 팀에서는 앞서 방문한 이노카페 운영을 비롯해 서울산학기술포럼 등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기술포럼은 단지내 기업과 서울대 등 인근 대학이 결성한 포럼으로 산·학 협력 및 기업 간 제휴를 하고 국내 산업계의 기술혁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6월 출범했다. 기술포럼에는 “현재 CEO 106명과 자문교수 26명이 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CEO 정기포럼과 기술세미나가 열리고 해마다 CEO워크숍과 IT기술장터를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원사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골프, 등산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기 팀장은 최규현 대표에게도 포럼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하며 회원특전도 소개했다. 중소기업청 정책 자금 지원과 혁신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입학에 우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또한 지역혁신기술시스템(RIS) 산학연 참여기회 우선 제공을 비롯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자금지원 우대사항도 소개했다. 기술포럼에 대한 설명을 주의깊게 들은 최 대표. “한국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지원서비스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이노카페는 물론이고 기술포럼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다.

서울디지털드림타운 소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업무용 오피스텔 ‘서울디지털드림타운’은 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보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됐다. 드림타운은 대지면적 1천450여평, 연면적 7천44평 규모며 11평형 176세대, 22평형 212세대로 구성됐다. 각 세대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갖춰져 있고 다양한 근린시설이 속 속 입주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1순위의 입주 권리가 주어진다. 입주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사설관리팀 6300-6540~3



미니인터뷰

유티티 최규현 대표

올해 봄 서울벤처인큐베이터(SVI)에 입주한 유티티 최규현 대표는 이번 일일벤처체험을 통해 앞으로 회사운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에서 각종 지원서비스와 혜택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특히 공단 서울지사에 처음 방문하여 이노카페의 풍경은 대단히 인상적이라는 최 대표. 앞으로 기회가 달으면 직원들과 카페에 들러서 차 한 잔의 여유도 누리고 싶다고 하며 체험소감을 밝혔다.

